

청소년과 부모세대간 인식차이 : 청소년의 학교생활을 중심으로*

손 승 영**

최근 들어 생활양식이나 가치관에 있어 청소년과 부모세대간 인식 차이가 점차 커지고 있다. 특히 청소년의 학교생활에 대한 세대간 인식과 이해 차이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20명의 중·고등학생과 10명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함으로써 청소년의 학교생활 및 학업에 대한 가정 내 세대간 차이에 주목하였다. 첫째, 청소년의 입장에 서서 학생들이 학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어떠한 태도로 임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둘째,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해 부모는 어떠한 평가를 내리고 있으며, 자녀의 현재나 미래에 대해 어떠한 기대를 갖고 있는지 조사하였다. 셋째, 부모와 자녀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서로의 생각을 비교해볼 수 있는 세대차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자 노력하였다. 넷째, 청소년이 학교생활을 원만히 그리고 만족스럽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정책적 차원에서 모색해 보았다.

I. 머리말

최근 들어 매스컴에서는 청소년의 학교생활과 관련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중·고등학생의 수업태만, 등교거부, 학교폭력 등 부정적인 기사들이 심심찮게 소개되고 있다. 심지어 ‘학교붕괴’라고 얘기할 정도로 심각한 사안들이 언급되기도 한다(KBS, 1999. 10. 21). 요즈음의 세태를 반영하기라도 하듯 청소년의 반항적이고 자유분방한 행동들은 대중매체를 통해서도 자주 부각되고 있다. 그 여파가 떠들썩했던 영화 ‘여고괴담’이 좋은 예이다. 이 영화에 대해서는 “교사를 너무 잔혹하게 그렸다”, “교사의 권위를 실추시켰다” 등의 평이 따랐다. 그러나 이러한 기성세대의 지적이나 교사들의 분개와는 달리 학생들 중 상당수는 학교에서의 경험을 실감나게 드러냈다는 긍정적 평가를 내림으로써 세대간 갈등이 첨예하게 표출되기도 했다. 청소년들은 서태지의 ‘교실이테아’처럼 금지된 곡에 대해서도 자신들이 교실에서 느끼는 억압적인 면들을 잘 나타냈을 뿐만 아니라 억압에서의 탈피를 꿈꾸는 아이들의 심리를 적절히 그려냈다고 찬사를 보내

* 이 글은 미래인력연구센터가 주관한 ‘청소년의 일상과 가족’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 동덕여자대학교 교양학부 여성학 교수

기도 했다(최상진, 1996).

세대간 차이는 일상생활이나 가치관에서도 나타나서 학업이나 미래 희망에 있어서도 부모-자녀간 차이가 커지고 있다. “학교는 꼭 마쳐야한다” 또는 “학교는 졸업해야 사회에서 행세할 수 있다”는 지론을 펴고 있는 부모세대와는 달리 학교를 꼭 졸업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저항하는 신세대의 가치관은 사뭇 다르게 나타난다(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1996). 이와 같이 청소년의 학교생활이나 학업에 대한 설명이나 평가는 보는 개인의 관점이나 입장에 따라 상당히 달리 나타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첫째, 청소년의 입장에 서서 학생들이 학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어떠한 태도로 임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주목적이다. 둘째,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해 부모는 어떠한 평가를 내리고 있으며, 자녀의 현재나 미래에 대해 어떠한 기대를 갖고 있는지 조사하고자 한다. 셋째, 부모와 자녀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서로의 생각을 비교해봄과 동시에 세대 차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를 찾아보고자 한다. 아울러 청소년의 학교생활을 원만히 그리고 만족스럽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정책적 차원에서 모색하고자 한다.

II. 선행연구

1. 청소년의 학교생활

청소년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기존의 문헌들을 정리해 보면, 크게 입시와 관련된 관료적 학교제도의 모순, 학교에 대한 학생들의 태도, 교사와 학생 관계 및 교우관계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한국의 학교는 입시와 주입식 교육으로 대변된다. 대학입시로 인해 ‘입시지옥’이라고 불릴 정도로 중앙집권적 교육체제 하에 청소년을 움아매는 제도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 소위 일류주의, 과잉경쟁으로 인한 ‘고3병’이 만연해 있어서 가족과 수험생에게 모두 스트레스로 작용하고 있다(와다 히데끼, 1996; 이동원 외, 1996; 차경수, 1996). 최근 들어서는 꼭 대학만을 고집하기보다는 학생들이 희망 직종을 선택하거나 스타로의 꿈을 키우는 등 과거와는 다른 양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나 서구 사회와 비교할 때 이와 같은 변화는 극히 미미하며, 입시제도 위주의 관료적인 학교의 모습은 여전히 작동되고 있다.

둘째, 입시위주의 교육제도 속에서 학생들은 틀에 박힌 학교생활에 재미를 느

끼지 못하므로 수업시간에 졸거나 딴 생각을 할 때가 많다(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 1996). 각 학급에서 절반 이상의 학생이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소수 엘리트 양성을 위해 다수 학생들의 요구나 희망은 묵살되고 있다. 학교 교육이 입시위주의 관료적 형태로 진행되고 있어 학생들이 흥미로운 학교생활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립된 시민으로서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게끔 돕는 기회와 장소를 제공하지도 못하고 있다.

셋째,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발생하는 급우나 교사와의 관계도 때로는 학생들에게 부정적으로 작용한다. 학교에서 왕따 당하는 학생이나 폭력에 시달리는 학생 수가 늘어나고 있으며 때로는 사망사건으로 마무리되기도 한다(한겨레, 2000. 11. 13). 서울 소재 남녀 중·고등학생 1,91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7)에 따르면 조사대상 학생의 과반수인 57%가 1년동안 '학교주변에서 누군가로부터 괴롭힘, 금품피해, 신체적 폭력, 폭행위협 등의 폭력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조사에서는 폭력을 경험한 학생 중 4분의 1은 동일한 가해자로부터 반복해서 폭력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박상희, 1996). 뿐만 아니라 요즘 들어서는 여학생들 중에서도 폭력을 휘두르는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권이중, 1996).

넷째, 기존의 교육제도에 대한 학생들의 혐오와 거부 의 몸짓도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조혜정, 1996; 이한, 2000). 학생들은 비행을 저지르기도 하며 소위 유해환경으로 불리는 곳에서 서성거리기도 한다. 거리의 폭주족으로 변하든지, 나이트클럽으로 고객을 유인하는 '빼끼' 직종을 택해서 돈을 버는 쪽으로 전향하든지, 위락시설을 들락거리는 형태로도 나타난다(한준상, 1997). 공부압력에 견디지 못해 가출하는 경우나 중퇴를 택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1996). 학생들 중 가출이나 자살충동을 느꼈다는 비율 또한 상당히 높게 나타난다. 고3 학생과 재수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한 조사(이동원 외, 1996)에 따르면 가출충동을 '자주 느낀다(9.7%)'와 '가끔 느낀다(43.1%)'를 합치면 과반수의 학생 응답자가 가출 충동이 있었으며, 총 43.5%의 응답자들이 자살충동이 있음을 시인하였다. 특히 여학생들의 자살충동은 54.1%로 남학생에 비해 높게 나타나서 여학생에게 입시스트레스가 더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섯째, 학생들은 공부만 하는 아이들을 존경하지는 않는다. 공부만 열심히 하고 세상 돌아가는 바를 모르거나 대중매체에 대해 무지하면 오히려 '뻔뻔'으로 따돌림을 받게 되는 판이다. 다른 친구들에게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부를 잘하면서 놀기도 잘해야 한다(김언정, 1999). 학교에서는 공부를 안하는 척하고 집에서는 남몰래 더해야 하다보니 경쟁은 경쟁대로 유지되고 있으므로 학생들의 부

담이 과거에 비해 더 커지고 있는 셈이다. 머튼의 적응유형을 청소년집단에 적용해서 실시한 조사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목표도 있고, 수단도 구비되어 있다고 강한 자신감을 나타낸 학생들이 인정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에서나 학교에서 모범적이면서도, 웃을 대범하게 입는 것을 즐기며, 실력이 있으면서도, 개성이 뚜렷하면 더 높은 평가를 받는다고 한다(손승영·김용학, 1995).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청소년의 학교생활을 다루는 문헌에서는 입시위주의 교육이 청소년으로 하여금 학교생활에 흥미를 못 느끼게 하는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또한 과도한 경쟁체제 내에서 학생들의 관계도 왜곡되게 나타나서 친구를 따돌리고 놀리는 현상은 심각하다. 뿐만 아니라 학교생활에 적응을 잘 하는 학생들도 대중매체에 대한이 지식이 해박하고 잘 놀기도 해야 인정을 받기 때문에 부담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학교 부적응자나 공부 압력 부담을 견디지 못하는 학생들은 가출충동을 느끼거나 중퇴를 시도할 정도로 학생들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2. 부모-자녀간 세대차이

청소년의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가족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규명한 연구는 극히 제한적이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입시와 관련된 문헌까지 포함해서 가족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정리하고자 한다.

첫째, 청소년의 요구가 다양해지고 호기심이 강해지고 있으나, 우리의 가정은 여전히 보수성을 띠고 있어 자녀의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연문희, 1996). 학벌을 중시하는 사회적 풍토로 인해 자녀의 명문대 진입이 가족의 성공으로 받아들여지다 보니 자녀교육 자체가 ‘가족사업’으로 자리매김 하기도 한다. 교육받지 못한 부모는 한푼이식 교육관을 자녀에게 주입시키며, 웬만큼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가정에서는 가업계승이나 지위재생산을 위한 도구로 교육을 활용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 자녀가 부모를 위한 ‘대리만족의 도구’로 전락했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조성숙, 1995).

둘째, 학력중심의 사회풍토는 학생 개개인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은 남보다 앞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성적을 유지하여 명문대학에 진학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다. 반면 대학진학을 확신할 수 없는 성적부진 학생들은 부모의 기대에 못 미친다는 자책감과 실패감 등으로 괴로워한다. 또한 이미 대학진학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은 실업계 학생들은 사회의 주류에서 밀려나 있다는 소외감을 갖게 된다. 이렇게 학생 전체에게

가해지는 학력주의와 그로 인한 과열 입시경쟁은 학생이나 가족에게 엄청난 심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 1996; 이동원 외, 1996; 최연실, 1996).

셋째, 부모와 아이 모두 스트레스를 받고 부담을 느끼는 이 공부와 입시 게임에 우리는 왜 매달려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부모의 기대가 작용하고 있고, 부모의 도리를 다하기 위해 자녀를 공부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다(최병진, 1997). 아이의 행복을 위해 좋은 학교에 갈 것을 권유하고 자녀에게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는 부모가 많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결국 아이를 위해서가 아니라 부모의 도리를 다하기 위해서나 부모의 기준과 욕심이 작용한 결과라는 비판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넷째, 사춘기에 들어선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심리적으로 독립하고 싶어하며 부모의 통제에 대해 저항함으로써 부모와 자녀간에 갈등이 증폭되기도 한다(Steinberg, 1981; Steinberg, 1987). 그러나 청소년들은 여전히 의존적인 상태에 놓여있다. 청소년들은 부모의 전통적 입장에 대해 상당히 비판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으면서도 부모에게 깊이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하임 기너트, 1984). 이와 같은 이중적 성격은 청소년기의 특수성이기도 하다(Erikson, 1968; Kroger, 1989). 이에 청소년들은 전통사회와 현대사회의 틈새에 살고 있는 ‘틈새세대’로 표현되기도 한다(최상진, 1996).

III. 심층면접 결과

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를 위해 총 20명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실시하였다. 표 1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중학생 10명과 고등학생 10명이 사례에 포함되었으며 남녀 비율은 각각 50%로 동일하게 선정되었다. 지역적 안배도 이루어져서 강남, 강북, 신도시에서 골고루 사례를 선정하였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먼저 심층면접을 한 다음, 면접에 응한 학생들 중에서 절반만 선정하여서 그 아이들의 어머니를 심층면접하였다. 조사의 편의를 위해 부모 중 어머니만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한 점은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지적하게 된다. 그러나 아버지의 입장이나 역할에 대해서도 청소년이나 어머니 면접서에 중간중간 질문을 하여서 연구내용으로는 포함을 시켰다. 면접은 청소년의 집이

나 집 부근 제과점 또는 커피숍에서 행해졌으며, 한 사례당 1회에 2시간 정도의 면접시간이 소요되었다. 면접 후에 보완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컴퓨터 아-메일을 이용하거나 전화를 걸어서 추가 질문하는 형식을 취했다.

표 1 : 피면접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징

번호	학년	성별	거주지역	아버지 직업	어머니 직업	어머니 인터뷰
사례 1	중 1	여자	신도시	기 자	회사원	○
사례 2	중 1	여자	강 북	회 사 원	자영업	○
사례 3	중 1	여자	강 남	회 사 원	판매원	
사례 4	중 2	여자	신도시	자 영 업	자영업	
사례 5	중 2	남자	강 남	판 사	공무원	○
사례 6	중 2	남자	강 북	노 동	주방일	○
사례 7	중 3	남자	강 북	회 사 원	교 사	
사례 8	중 3	남자	강 북	회 사 원	주 부	
사례 9	중 3	여자	강 남	자 영 업	주 부	○
사례 10	중 3	남자	강 남	관 리 직	주 부	
사례 11	고 1	남자	강 북	교 사	교 사	
사례 12	고 1	남자	강 남	사 업	주 부	
사례 13	고 1	여자	강 북	교 수	공무원	○
사례 14	고 2	여자	강 북	회 사 원	주 부	
사례 15	고 2	여자	신도시	교 수	교 수	
사례 16	고 2	여자	강 남	의 사	의 사	○
사례 17	고 2	남자	신도시	회 사 원	강 사	○
사례 18	고 3	남자	강 북	주차요원	파출부	
사례 19	고 3	여자	강 남	회 사 원	주 부	○
사례 20	고 3	남자	강 북	강 사	번역가	○

2. 학교생활

청소년의 학교생활은 학교에 대한 전반적 인식, 학업성적, 교사와의 관계, 친구관계 등 여러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다. 학교, 교사, 친구관계 순으로 피면접자들의 의견을 정리하기로 하겠다.

1) 학교에서의 경험

조사에 응한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교에 대해 '별로 재미없는 곳', 하지만 '달리

갈곳이 없고 학교에 가면 친구들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가는 곳' 정도의 평가를 내리고 있다. 학교는 '방학중에는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다가도 개학이 되어서 매일 가게 되면 역시 재미없는 곳'으로 인식이 바뀌게 되는 장소로 규정되고 있다.

아이들이 학교에 대해 꺼리는 마음이 생기는 이유는 정해진 등교시간, 많은 숙제, 때때로 내려지는 체벌, 엄격한 규율, 내실 없는 자율학습 시간 등을 꼽았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이 적었으면 좋겠다"라고 이구동성으로 답변하였다. 공부에 대한 바람은 약간 달라서 "공부를 적게 시켰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한 아이가 있는 반면 "더 실력 있는 선생님들이 많아서 효율적으로 학습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다소 다른 생각도 들을 수 있었다. 아이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프로그램으로는 많은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는 특활시간이나 학교를 알릴 수 있는 경연대회, 축제, 음악제, 신기록제 등의 특별 프로그램들이었다. 또한 비교적 자유로운 활동을 운동장에서 할 수 있도록 배려되어진 체육시간이 좋다는 이야기를 하는 학생들도 다수 있었다. 주어진 틀 속에서 생활하기보다는 독창성을 요구하는 수업을 좋아한다는 반응이다.

학교에 대해 훨씬 더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는 아이들도 있었다. 학교는 뛰쳐나가고 싶은 곳이라는 생각을 들게 만드는 때도 종종 있다고 한다. 단체 기합을 받거나 잘못된 것도 없이 혼이 날 때는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고 인생살이가 고달프다고까지 하소연한다. 특히 고등학생들이 중학생에 비해 훨씬 더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 보였다. 이는 저학년일수록 자기 의견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짤막하게 대답했기 때문인 이유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고학년일수록 공부스트레스로 인한 어려움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2) 통제와 규율에 대한 저항

학교생활에 대해 아이들은 때로는 저항하고 때로는 순응하기도 한다. 아이들은 관료적인 학교에 대해서는 대체로 저항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아이들이 문제 삼고 있는 것은 학교에서 요구하는 복장과 규율에 관한 것들이었다. 하지만 교복이 싫다는 아이들도 교복자체를 없애자는 것은 아니었다. 디자인이 싫다거나 또는 치마와 바지 길이에 대한 통제가 심해서 혼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바지와 치마길이를 자로 재서 너무 길면 잘라내고 너무 짧으면 혼을 내야 직성이 풀리는 교사들이 여전히 있다고 한다(사례 8). 복장과 관련된 사항 중 남학생들은 두발에 대한 불만이 주를 이루었고 바지 모양이나 길이에 대해 언급한 학생들이 소수 있었으나, 여학생들은 다수가 머리

모양이나 길이 외에도 머리핀이나 귀걸이를 포함한 액세서리 착용, 교복 스타일이나 치마 길이, 양말 색깔이나 모양 등에 관해 광범위한 불만을 토로하였다.

어머니들은 자녀들과는 다른 입장을 보였는데, 자녀들에 비해서는 약간의 통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닌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어머니들 편에서도 이유는 달랐지만 융통성 없는 교복 정책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는 사례들이 있었다.

학교에서 교복은 입히지만 정해진 복장들 내에서는 어느 정도 융통성이 있게 부모나 아이들에게 자율권이 주어졌으면 좋겠어요. 올해 가을에 추석이 지나니 갑자기 추워졌기에 아이보고 춘추복 입고 가라고 했더니 다음 주 월요일부터로 정해져 있어서 안 된다고 해요. 밖에 나가보니 다들 잠바나 스웨터나 꺼내 입고 가는데, 중·고등학생만 반소매 옷을 입고 추워하면서 웅크리고 다니는 것을 보니 화가 나더라고요. 날씨가 언제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기계적으로 한날 한시에 옷을 바꿔 입혀야 한다는 발상부터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 같아요(사례1의 어머니).

어머니들 중에서도 요즘 10대를 겨냥한 화장품이 인기를 끌고 있어서 너도나도 사용하고 있고 아이들이 사복을 입을 때는 온갖 멋을 부리는데 학교에서는 아이들의 취향이나 개성을 인정하지 않고 획일적인 정책을 고수해 나가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경우가 있었다. 특히 아들이 바지가 길다는 이유로 지적을 받고 나서 약간 줄여서 입고 다녔는데도 그래도 길다며 선생님께 심하게 매를 맞은 적이 있다고 애기한 어머니는 복장이나 두발 관련 정책이 완화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3) 선생님에 대한 다양한 평가

담임선생님은 아이들의 학교생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아이들은 담임선생님에 따라 자신의 1년 생활이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고 했다. 그러나 아이들은 선생님께 자신의 고민을 거의 상담하지 않고 있다. 이는 친구와의 관계를 선생님께 얘기하게 되면 고자질했다는 이유로 친구 사이가 더 나빠지게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선생님께 혼이 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때로는 친구와의 싸움이나 불화가 단체체벌의 원인이 되므로 알리지 않는 편이 낫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이들은 선생님이 먼저 알게 되어서 질문해 오면 솔직하게 얘기하는 편이다. 또한 학급 분위기가 너무 나쁘거나 위기 사항이라고 판단되면 혼이 나더라도 선생님께 말씀드린다고 한다.

아이들은 비교적 뚜렷이 자신이 좋아하는 선생님과 싫어하는 선생님의 이미지를 갖고 있었다. 자신의 입장을 잘 이해해주고 대화가 잘되는 신세대 기질을 지

닌 선생님, 실력이 좋아서 수업을 머리에 쏙쏙 들어오게 잘 진행하는 선생님, 또 담임선생님이 아닌데도 아이들의 이름을 잘 기억해서 친절하게 대해주는 선생님이 좋다고 한다. 요약하자면, 좋은 선생님은 이해를 잘해주거나 주입식으로 수업을 진행하지 않고, 실력 있고, 학생들과 상호작용이 많은 선생님이다.

좋은 선생님은 우리랑 얘기가 잘 되는 선생님이요. 우리 학교에 계신 3학년 담당 수학선생님은 아이들이 다 좋아해요. 젊은 여자 선생님이고요. 신세대 선생님인데 참 좋아요. 하고 싶은 얘기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여럿이서 선생님 모시고 얘기하기도 해요. 남자 친구 얘기도 하고 고민 얘기도 하고.. 아무튼 이 선생님한테는 정말 솔직하게 다 말하고 싶어요(사례 9).

아이들이 싫어하는 선생님은 권위적이거나, 특정학생을 편애하거나, 단체 기합을 잘 주거나, 감정 컨트롤이 잘 안되는 교사로 요약된다. 반에서 공부 잘하는 아이나 반장 또는 회장을 선생님들이 좋아하는 경향을 보이며 심지어 그 아이에게 교사용 문제집을 주거나, 청소를 면제해 주는 등 특별 대우를 하는 것이 눈에 띄기 때문이라고 한다. 가장 싫어하는 선생님은 소위 자기네 딸로 ‘변태 선생님’을 꼽았다. 한 중학생 여자 아이는 체육선생님을 예로 들었고 한 고등학교 여학생은 나이든 선생님 한 분이 친절한 척 하면서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고 만지는데 너무 싫다고 한다.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어리게 보고 귀여움의 표시로 하는 행동마저도 아이들은 민감하게 거부의 표시를 하는 측면이 있기도 하다. 그러나 아이들이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속에는 선생님 측의 성희롱에 대한 무심함이 그대로 배어 나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변태선생님으로 지칭하는 경우에는 자기들이 보기에 성격이 매우 나쁜 선생님이 포함되어 있다. 감정 컨트롤이 잘 안되어서 이유 없이 화를 내는 선생님은 싫다는 것이다. 학생들 측에서는 자신들이 여느 페처럼 행동하여도 선생님이 화를 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선생님이 변덕을 부리거나 신경질을 내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숙제 안 해오는 것, 지각하는 것, 떠드는 것, 교실이 지저분한 것 등 아이들이 보기에 다소 사소한 일상적인 일로 인해 과하게 혼이 날 때는 선생님께 대한 불만이 쌓이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4) 정보교환의 장으로서의 학교

학교는 아이들에게 단순히 공부만 가르치는 곳은 아니다. 동년배 아이들끼리 매일 모여서 생활함으로써 새로운 정보를 교환하고 취미를 공유하기도 하고, 소비문화를 조정하며, 한 방향으로의 행동으로 유도하기도 한다. 한 예로 핸드폰을

사도록 부추기기도 하여서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계층이 모이는 한 강남의 고등학교 아이들 사이에서는 ‘핸드폰은 필수품’이라는 말까지도 나오게 되었다.

핸드폰은 모두 있어요. 반 아이들 46명중에 1명만 빼고요.... 아이들이 핸드폰 100% 보급률을 달성하자고 그 아이한테도 사라고 했는데, 개네 부모가 안 사준다니까 할 수 없죠 뭐(사례 12).

아이들은 반에서 정보를 나누기도 하고 주류문화에 속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어머니들의 입장은 달랐다. 어머니들은 아이들의 소비성향이 커지지 않도록 학교에서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친구들이 다 MP3 플레이어 있다고 하더니 올해 초에 세뱃돈을 받고는 그걸 사서 는 거기에 얼마나 시간을 쏟는지 몰라요(사례 20의 어머니).

요즘 학원에 가서 보면 친구들이 벨트를 한 가닥 쪽 빼서 밑으로 내리는게 유행이라고 자기도 그렇게 긴 벨트를 사내라는 거예요. 중학생이 되더니 멋도 부리겠다고 하고 친구들 하는걸 보고는 좋은 건 다 해내라는 거죠(사례 5의 어머니).

5) 또래문화의 형성

아이들이 가장 동경하는 사람은 연령별로 그리고 성별로 차이가 있는 듯이 보인다. 중학생의 경우에는 다수가 연예인이나 모델을 직업으로 가진 또래를 동경하는 태도를 보인다.

제일 부러운 아이는 펜클럽 회장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가수를 자주 만날 수 있기 때문이지요(사례 4).

어린 나이에 자기 꿈을 이룬 아이들이 제일 부러워요. 중학생 중에서도 가수도 되고 모델로 뽑힌 아이들도 있어요(사례 1).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연예인에 대한 동경은 다소 적고 현실적인 면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자신의 진로가 이미 결정된 아이들, 이미 상을 받아서 특정 대학에 가기로 결정된 아이들, 공부를 잘해서 대학 진학이 수월한 아이들, 또 외국으로 유학을 가서 입시 경쟁에서 면제된 아이들을 부러워하고 있었다. 소수이긴

했지만 잘 생긴 아이와 돈 많은 집 아이를 부러워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입시에서 면제된 아이들 모두에 대해 부러워하는 것은 아니다. 자신들은 이렇게 애써서 공부하고 있는데 실력도 없으면서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또는 미국에서 몇 년 살고 왔다는 이유로 대학에 특차로 지원해서 쉽게 합격한 경우에 대해서는 오히려 적개심까지 나타내 보이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이미 진로가 정해지거나 출중한 재능을 가진 또래를 부러워하는 아이들에게 정작 자신은 무엇이 되고 싶은지 물어 봤을 때, 구체적인 목표가 없는 아이들이 다수였다. “뭘 하고 싶은지 잘 모르겠어요,” “딱연히 하고 싶은 것은 있어도 내가 꼭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어요” 식의 대답이었다. 아이들의 학교에서의 일상은 단조로와 보였고 아이들 사이에 큰 차이가 없었다.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남자아이들이나 여자아이들이나 모두 쉬는 시간에 가장 많이 하는 것은 미점에 가서 사먹는 일, 숙제하는 것, 친구랑 수다떠는 것 등이었다. 중학생이 교실에서는 더 활동적으로 보인다. 남자아이들은 교실에서 뛰다니거나 레슬링을 하기도 한다. 또 여자아이들도 남자아이들과 같이 게임을 하면서 놀기도 하였다. 고등학생은 좀 더 조용히 지내는 경향을 보인다. 운동장에 나가서 축구나 농구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교실에서 친구들이랑 스포츠와 컴퓨터 게임에 대해 주로 얘기한다고 대답하였다. 여자 친구가 있는 아이들은 여자친구 이야기도 한다. 여학생들은 함께 비디오를 녹화해서 점심을 먹고 쉬는 시간에는 비디오를 보기도 하고 남학생들에 비해 드라마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다.

또래 문화는 아이들로 하여금 유사한 취향을 나눠 갖고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동류의식을 갖게 하는 점에서는 매우 긍정적이다. 하지만 또래문화가 때로는 부정적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아이들끼리의 경쟁을 부추기기도 하며, 공부를 잘 하면서도 열심히 하는 척을 해서 안 된다는 불문율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3. 부모의 개입

부모들은 자녀의 생활에 다양한 형태로 참여 또는 개입한다. 자녀 학교 방문하기, 학교에서의 봉사활동, 자녀 공부 가르치기 등 직접적인 개입뿐 아니라, 자녀의 여가생활, 이성교제, 소비생활, 친구관계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개입한다.

부모가 학교활동에 참여하는 채널은 다양해지고 있다. 육성회, 운영위원회나 학급 임원회를 통한 정기적 활동뿐 아니라 학교 체육대회, 바자회, 신기록제 등 비정기적으로 열리는 행사를 돕기 위해서도 자발적으로 참가하거나 동원되기도

한다. 중학생일수록 어머니의 학교 방문 횟수가 적으며 고등학교에서도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어머니들의 방문횟수가 늘고 있다. 그 결과 고3 학생의 어머니들이 가장 많이 학교를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대학입학시 학교장 추천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면서 어머니의 학교활동도 늘어나고 있다. 한 예로 학생회장 선거전에 어머니들까지 가세하여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한 강남에 사는 어머니는 고등학교 2학년인 딸이 부회장 후보로 선거에 나갔는데, 선거 비용을 지원하느라 일을 돕느라 꼬박 3주일간 이 일에 매달렸다고 한다(사례 16의 어머니).

학교를 중심으로 부모가 공적 활동에 참여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지만 학부모의 학교와의 관계는 여전히 사적 차원에서 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공적활동에는 전혀 참여하지 않는 학부모도 담임 선생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거의 대부분이 적어도 1년에 한 차례는 학교를 방문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적 차원에서는 학교에 대해서나 담임선생님에 대해 고마운 마음을 표시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부모도 공적활동이나 학교 발전을 위한 모금 마련에 있어서는 인색한 경우들이 있다. 아이들 급식을 위한 세척기 마련이나 학교시설 증축에 대한 비용을 학부모회에서 같이 내었으면 하는 입장이 제시되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한다(사례 1의 어머니와 사례 5의 어머니).

한국가정에서는 자녀교육에 대한 아버지의 역할은 미미하며, 어머니들이 주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조사에 임한 사례들 중에서 아버지가 학교를 방문하는 사례는 졸업식, 입학식 등과 같은 특별한 행사에 국한된다. 초등학교 때는 운동회에 참석했지만 중·고등학교에 진학하고 나서는 온 적이 없다는 경우가 과반수이었으며 학교에서 하는 축제나 음악제, 신기록제에 아버지가 참여했다는 사례는 단 2명에 국한되었다. 그러나 자녀교육이나 학교행사에 열성을 보이지 않는 아버지들도 아내를 통제하고 책임을 추궁하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가정주부에게는 “집에만 있으면서 아이교육 하나 제대로 못하고 뭘 해?”라는 식의 호통이 종종 가해진다. 맞벌이부부의 경우 어머니에게 가해지는 이러한 비난은 상대적으로 적다. 어머니들 중 이러한 불호령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자녀 교육에 열중하는 사례들이 있다. “아이가 성적이 나쁠 때는 남편이 보고 화를 낼까봐 아이 성적표를 숨긴다”고 대답한 어머니가 있었으며, “남편은 아이가 좋은 대학에 가야된다고 믿고 있는데 아이 성적이 좋지 않아 벌써부터 고민이다”라고 얘기한 고2 여학생의 어머니도 있었다. 조사에 포함된 세 명의 고3 어머니 중 한 명은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린다고 했고 다른 한 명은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한다고 응답했다. 이와 같이 어머니들은 수험생 자녀를 위한 주역이기도 하면서

가중한 부담과 책임도 함께 떠맡고 있다.

4. 부모-자녀 관계

조사 대상 어머니들은 자녀가 대학에 반드시 가서 사회에서 인정받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현재 성적이 잘 안 나온다는 아이의 어머니도 “애가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해요.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성적이 오르고 좋은 대학에 갈텐데,” 또는 “내가 생활에 쪼들려서 남들처럼 비싼 과외를 못시켜서 성적이 오르지 않나 싫어요”, “내가 돈벌러 나가느라 아이 공부를 잘 감독을 못해서 공부에 소홀한게 아닌가 싫어요” 식의 반응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자녀의 생각은 상당히 다르다. 자신도 공부를 잘하고 좋은 대학에 가고 싶지만 성적이 그렇게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부모가 저에게 큰 기대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성적이 많이는 안 오를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성적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말고 그대로 내버려뒀으면 좋겠어요”라는 입장이다. 또 “신경은 써주더라도 간섭이나 공부 잔소리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식의 반응이 주류를 이룬다.

부모들 사이에서는 주위에 자녀가 이미 좋은 대학에 간 경우는 화제 거리가 되며 서로 부러워한다고 한다. 자녀의 진학은 주위의 부러움을 사고 집안에서도 인정받는 계기가 된다. 그러므로 자녀를 둘러싸고 경쟁을 내면화하거나 기대를 갖는 것은 자녀보다 부모에게서 더 뚜렷한 현상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아이들 사이에서 공부를 못하는 아이는 자존심 때문에 공부 이야기를 잘 안하며, 공부를 잘 하는 아이들끼리는 경쟁심리의 발동으로 오히려 공부 이야기를 안 한다고 한다. 또한 웬만큼 하는 아이들은 “꼴찌가 더 편해요. 부모들이 기대를 안 하니 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려면 아예 공부를 못하면 되죠”라고 불평을 털어놓는다. 공부에 대한 기대를 아예 포기한 집에서는 부모가 나서서 자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려고 하고 자녀 입장에 서서 대안 찾기에 협조적이라는 것이다. 반면에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부모와 선생님의 높은 기대 때문에 더 시달린다는 것이다. 또 아이들은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기대치가 높아 자녀가 힘들다고 얘기하고 있다. 부모가 학력이 높으면 자식이 아무리 잘 해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고마워할 줄을 모른다는 것이다.

자녀들은 부모에 비해서는 상당히 갈팡질팡하고 있는 것 같다. “나는 사실 내가 뭐가 되고 싶은지 잘 모르겠다”는 아이들에서부터 모델, 가수, 요리사가 되고 싶지만 “막연한 꿈이고 실현가능성은 없어 보인다”는 아이들과 “나는 정말 화가

가 되고 싶은데, 아빠는 공부해서 국제변호사가 되어야 한다고 해요”라는 아이들이 다양하다. 말 그대로 청소년기 아이들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하지만 많은 아이들이 자신이 무엇이 되고 싶은지 모른다면 자신 없어 하는 것 자체가 큰 문제이다.

부모들은 자녀의 학비를 대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아침에 깨워주기, 도시락 싸주기, 학교나 학원에 데려다주기, 공부 가르치기 등 다양하게 자녀를 위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부모에 따라 공부에 개입하는 정도는 다르다. 과외선생님처럼 직접 공부를 시키는 부모, 학원에 보내거나 과외를 시키면서 감독만 하는 부모, 아이가 집에 들어올 때까지 항상 기다리는 부모, 과외선생님 선정에 개입하는 부모, 공부하는 아이 옆에서 책을 같이 읽는 부모, 아이의 자율에 맡기는 부모 등 다양하다. 부모는 공부압력을 넣는 외에도 자녀의 이성교제, 취미활동에도 개입하는데, 이러한 간접적 개입도 자녀의 공부에 대한 우려와 직접 연결되어 있다.

5. 아이들의 반응과 저항

부모의 공부압력이 과다할 때 아이들은 저항하기도 하며, 때로는 못 들은 척 판청을 피우기도 한다. 부모에게 대항해서 그 앞에서 화를 내는 경우도 있지만 전통적 가치를 주입하는 가정에서는 자녀가 속마음을 전혀 표출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아빠가 공부 때문에 자신을 여러 번 혼내는 것을 경험한 한 남학생은 부모 앞에서는 순응하는 척 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무척이나 저항하고 있었다. 자기가 “공부는 일류대 출신인 아빠만큼 잘할 수 없겠지만 앞으로 돈은 아빠보다 훨씬 많이 벌어서 아빠 코를 납작하게 만들고 싶다”는 속마음을 털어 놓기도 하였다.

아이들은 공부나 성적을 핑계로 부모와 거래를 하기도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게 만들려는 부모의 심리를 이용해서 실익을 구하기도 한다. 아이들은 흔히 “성적 오르면 얼마 줄래요?”하는 식으로 시험 전에 미리 부모와 거래를 한다. 중학생들은 CD 사주기, 자신이 좋아하는 가수의 팬클럽 가입비 내주기, 오락기 사주기, 옷 사주기 등으로 내기를 건다고 한다. 그러나 고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이 거래도 시들해지고 약속이 잘 안 이루어지면 서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한다.

청소년들은 놀고 싶은 유혹이 있으나 부모가 용돈을 충분히 주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부모에게 거짓말을 하는 수도 종종 있다. 한 고등학교 남학생의 경우

에는 친구들이랑 만나면 피씨방을 가게 되는데, 엄마가 공부에 방해되니 가지 말라고 하기 때문에 저녁 자을 학습 시간이나 학원 수업시간에 살짝 빠져 나와 피씨방을 자주 간다고 한다. 돈이 떨어져서 가기 힘든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그럴 때는 “책을 산다”, “학교에 내야 한다” 등의 거짓말로 돈을 타서 비용을 충당하기도 한다. 그 학생은 자기만 거짓말을 하는게 아니고 친구들이 다 조금씩은 쓰는 수법이라고 태연스럽게 이야기하였다.

IV. 논의 및 요약

본 연구를 실시하기 전에는 청소년 집단에 있어서의 다양성을 가정하고 조사에 임하였다. 청소년 세대는 청소년 사이의 개인주의적 성향의 증대로 ‘비동시성의 동시성’이 존재한다고 말할 정도로 이질적 집단이 공존하고 있음은 여러 학자들이 지적한 바 있다(잉글하트, 1983). 본 조사에서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차이, 여학생과 남학생의 차이, 공학과 분리 학교의 차이, 또는 강남과 강북이라는 지역별 차이에도 주목을 해 보았지만 확연한 구분을 보여주는 밑그림은 그려지지 않았다. 오히려 구체적 질문에 따라 집단간 차이는 달리 적용되어서 나타났다. 이것은 본 조사가 소수의 사례에 의존하고 있는 점이 제한요인으로 작용한 결과로 여겨진다.

그러나 부모세대와 자녀세대, 교사와 학생이라는 세대간 차이는 여러 측면에서 비교적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부모와 자녀는 사회변화를 수용하는 정도, 학업에 대한 규정, 이성교제의 허용과 소비패턴의 이해 등에서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결과를 종합해 보면 표 2에서 제시된 바와 같다.

첫째, 부모세대에 비해 자녀세대는 사회변화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학교나 부모는 느린 속도로 변화를 받아들이고 있으며 때로는 변화수용에 대해 부정적으로 바라보기도 한다. 그러나 자녀세대는 대중매체를 이해하는데 있어서나 소비문화를 수용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신속하며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 부모는 유행의 수용에 민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용 여부에 있어서는 개인차이가 커서 세대적 특성으로까지 발전하지는 않는다. 반면 자녀세대는 소리를 통한 개성추구를 중시여기며, 유행을 필수라고 여길 정도로 겉모양을 중시 여긴다. 여기에는 또래 압력도 한몫을 하고 있다. 유명한 스타를 꼭 알고 있어야 한다거나, 인기 있는 가수의 신곡 유행가 가사정도는 외고 있어야 친구들에게 인정을 받는다고, 아이들에게 필수라고 여겨지는 핸드폰을 갖고

있어야 하며, 그것도 새로 유행하는 모델을 갖고 있어야 ‘세련된 10대’로 받아들여진다는 예들에서도 잘 드러난다.

표 2 : 부모세대와 자녀세대의 차이

	부모 세대	자녀 세대
사회변화의 수용	느리다	매우 민감하다
대중매체 이해	약간 부정적	매우 긍정적
소비문화 수용	부정적 반응 저축을 미덕으로 미래를 위한 절제	긍정적 반응 소비를 통한 개성추구 현재의 소비가 중요
유행의 수용	민감하지 않음 개인 차이로 나타남	필수 사항으로 여김 겉모양 중시, 외모경쟁
학교에 대한 태도	높은 신뢰	저항과 순응의 공존
규제 및 규율	비교적 순응	반항적인 태도를 보임
선생님에 대한 태도	존경과 복종	선별적 평가
인간관계의 중요한 측면	행동의 통일	관심의 공유
공동체 의식	강하다	약하다
또래 압력	약하다	강하다
주된 경쟁의 종류	공부경쟁, 성공경쟁	소비경쟁, 외모경쟁, 상식경쟁
부모-자녀 관계	의무와 책임	관심은 O.K, 간섭은 No
궁극적 목적	자녀의 성공 기대	자신의 실의 중시
개입에 대한 태도	필요하다고 인식	긍정적 개입만 허용
미래에 대한 태도	구체적 목표 설정	추상적 목표 설정
목표 추구 과정	노력하는 태도 중시 수단 마련 과정	인간관계, 느낌, 취향 등 정서적 측면 중시

둘째, 학교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 자녀의 학교 졸업이나 대학 진학은 필수라고 생각해서 학교에 신뢰와 맹신마저 보이는 부모세대와는 달리, 자녀세대는 낮은 신뢰의 정도를 보여주고 있다. 청소년들의 학교인식 태도에서는 ‘저항과 순응이 공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모들은 학교에서의 규제와 규율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있으나 아이들은 거칠게 저항하거나 못마땅해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선생님에 대한 태도나 반응에 있어서도 세대 간 차이는 분명하다. 부모세대는 “선생님께 잘 보여야 된다,” “선생님은 잘 모셔

야 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청소년들은 선생님을 개인별로 각 선생님의 실력과 성격 및 자신과의 관계에 따라 선별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과거의 ‘신격화된 선생님의 이미지’는 사라지고 있고 지금의 심대는 ‘함께 경험을 나누는 생활인’으로서 선생님을 평가하고 인식하는 듯 싶다.

셋째, 친구관계나 인간관계 면에서도 부모와 자녀간에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부모세대는 친구들과 시간을 함께 보내는 ‘행동통일’이 친구관계에서 중요한 세대였지만, 10대에게는 관심의 공유라는 ‘정신적 유대’ 측면이 더 부각되어서 나타나고 있다. 자녀세대는 공동체의식은 별로 내면화시키지 않지만 자신이 속한 또래집단의 문화적 압력이나 요구에는 훨씬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 결과, 청소년들은 부모세대에 비해 더 경쟁적인 분위기에 노출되어 있다. 부모세대는 공부경쟁과 사회에서의 성공이라는 결과적 측면에서의 경쟁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던 세대이다. 하지만 자녀세대는 ‘공부경쟁’ 외에도 ‘소비경쟁’과 ‘의모경쟁’ 뿐만 아니라 새로운 문화상식, 스타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 대중매체나 정보화 공간에서 진행되는 변화를 더 빨리 받아들여야 하는 ‘상식경쟁’에도 노출되어 있다. 이와 같은 세대간의 문화적 괴리로 인해 부모들은 자녀의 일상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게 되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커지게도 된다.

넷째, 부모-자녀관계는 상호관계에 기반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관계에 포함되어 있는 양측은 서로 다른 관계를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부모는 자녀에 대한 많은 행위를 ‘의무와 책임’으로 규정한다. 또한 자신의 자녀에 대한 애정을 여러 수단을 동원해서 끊임없이 증명하고 싶어하고 자녀로부터 주위로부터 ‘좋은 부모’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바램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자녀는 자신이 받고 있는 물질적 혜택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반면, 부모의 관심이나 기대는 때로는 부담스럽게 여기고 있다. 어느 정도의 관심은 자녀측에서도 희망하고 있지만, 자신의 생활이나 자유를 침범할 정도로의 과도한 관심은 부담으로까지 여기고 있다. 자녀들은 부모에 비해 부모-자녀관계면에서도 적정선을 설정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부모는 “인생선택로서 지름길을 가르쳐주기 위해서라도 자녀의 생활에 대한 개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또한 자신의 개입이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확신한다. 반면 자녀는 부모의 개입이 때로는 과도한 스트레스를 주므로 자신이 부모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만 개입해 주기를 원하고 있다.

다섯째, 미래에 대한 태도와 방향 설정에 있어서도 부모와 자녀세대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부모는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나 자녀의 인생에 대해 비교적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자신이 희망하는 방향으로 자녀가 목표 달성을 위

해 노력해주기를 바란다. 그러나 자녀는 부모에 비해 목표가 뚜렷하지 않으며 부모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이해해줬으면 하는 바램을 내보이고 있다. 자녀는 오히려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나 인간관계에 주력해서 그러한 것들의 연장선상에서 막연히 무엇이 되고 싶다는 '추상적인 목표'만을 설정해 놓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자녀는 부모에 비해 미래보다는 현재를 중시하고 있으며 자신의 느낌, 기분, 취향 등의 포괄적인 정서적 측면을 중시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상과 같이 부모와 자녀는 여러 면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제까지는 부모와 자녀관계에 있어서의 주축이 부모였고, 제도화된 학교와 선생님 역할이 자녀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쳤지만 이제는 자녀의 입장에서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부모-자녀관계에 있어서의 중요한 부분인 자녀의 입장을 적극 수용해서 부모-자녀관계를 새롭게 평가하고 재정립할 것이 요구된다.

V. 제언

이 부분에서는 세대간 차이에 주목해서 학교정책이나 부모-자녀관계의 재설정을 전제로 각 영역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청소년의 입장을 대폭 반영해서 학교와 가족과 사회적 차원에서 청소년 문제가 논의되고 공동으로 해결책을 찾고자 노력할 때 청소년들이 현재 경험하고 있는 갈등이나 어려움이 대폭 줄어들 것이 분명하다.

1. 학교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제언

학교 시설에 대한 아이들의 불만은 예상외로 적었다. 그러나 아이들은 복장에 관한 규율과 자율학습에 대해서 많은 불만을 갖고 있었으며, 교육의 내용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문제삼고 있다. 아이들이 학교에 대해 느끼는 불만을 줄이고 학교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첫째, 자로 제는 듯한 엄격함과 규격으로 획일적 사고를 강요하는 전 시대의 관습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청소년들이 지속적으로 교육부 인터넷사이트에 글을 올리는 등 인권운동을 전개한 결과 2000년 10월 교육부에서는 두발규제를 품과 동시에 각 학교에서는 새로운 선도 규칙을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발표를 하였다. 그러나 일선학교에서나 학부모들은 학생지도를 문제삼아 여전히 꺼리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중앙일보, 2000. 10. 5). 이제 각 학교에서는 두발뿐만 아니라 융통성 있는 교복 정책을 펼쳐서 규제를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 여학생의 경우 바지와 치마 두 가지를 모두 교복으로 허용하거나 치마 길이는 각자의 자율에 맡길 수 있지 않나 싶다. 남학생의 경우는 셔츠의 색깔을 2-3가지쯤으로 허용하고 바지 모양이나 길이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의 자율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어느 어머니가 지적한 것처럼 스타킹이나 양말의 색깔에 있어서도 다양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교육의 내용과 질에 있어서 획기적인 변화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교육풍토가 얼마나 바뀌지 않고 있는지는 수십년째 계속 사용되고 있는 입시용 참고서를 보더라도 잘 알 수 있다. 학교는 이제 주입식 교육의 장으로나 아이들에게 수동성을 강요하는 장소에서는 벗어나야 할 것이다. 아이들은 자신들이 자율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는 특별프로그램에 한해서만 색다른 방식이 적용되는 듯하다. 일반 수업시간에도 아이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교육방법과 보조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아이들의 인간관계면에 대해서도 배려가 필요하다. 각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쉽게 고민을 의논할 수 있도록 상담을 전담하는 교사의 확충이 요구된다. 만약 예산 문제로 상담 전담교사의 확충이 어렵다면 기존의 교사 중에서라도 상담을 책임지는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학생들이 평소 공부를 배우는 선생님께 모든 문제를 터놓고 이야기하기 힘든 점도 있으므로 그럴 때를 대비해서 ‘쪽지 상담’이나 칸막이 방에서 서로를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상담을 진행하는 ‘칸막이 상담’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 몇몇 학교들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또래상담원 제도’의 도입도 고려해볼 만하다(한겨레, 2000. 11. 3).

2. 부모의 교육개입 방향 설정을 위한 제언

부모의 학교에서의 활동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모는 학교에 대해 저자세를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제 부모의 입장에서든 공식적 차원에서 학교의 발전방향을 위해 제언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각 학교에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만들고 부모 의견제시 코너를 준비해서 부모의 참여를 유도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노력이 있다면 부모와 학교의 상호작용을 높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또한 한 어머니가 제안한 것처럼 각 가정에서 원할 때 적은 액수를 수시로 전달하기 쉽게 모금하는 방법을 통해 학교 발전을 위한 방안을 부모와 학교가 공동으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기

별적으로 선생님을 만나거나 자녀의 내신성적을 올릴 수 있는 방법 찾기에 몰두함으로써 여전히 팽배해 있는 가족이기주의적 경향에서 탈피하는 계기로도 작용 하리라 기대된다. 게다가 본 연구를 통해 어머니가 자녀교육과 관련된 대부분의 역할을 담당하고 책임을 떠맡음으로써 가중한 부담을 안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어머니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아버지가 실제로 더 많은 시간을 자녀를 위해서 할애할 필요가 있을 뿐 아니라 최종 결정자나 문제자로서 군림하기보다는 책임과 의무를 수반한 부담 나누기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3. 부모-자녀관계 향상을 위한 제언

세대간 차이와 문화적 괴리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첫째, 부모 입장에서 자녀의 취향과 또래문화의 성격에 대한 이해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 자녀가 구체적으로 누구를 왜 좋아하며 어떤 면에 관심이 있는지를 부모가 관심을 갖고 살핍으로써 자녀와의 문화적 공백을 메울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조사에서의 피면접자인 아이들처럼 자녀는 부모에 비해서는 미래에 대한 목표가 뚜렷하지 않으며, 자신이 무엇을 잘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자신감이 없는 경우가 많다. 자녀는 공부를 잘 하는 아이나 성공한 아이들을 부러워하면서도 자신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확신이 서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이 부분에서 부모의 도움이 절실하다. 아이가 무엇을 잘 할 수 있는지, 무엇을 하고 싶어하는지에 대해 아이와 함께 구체화시킴과 동시에 그러한 자녀의 관심을 미래에 대한 청사진으로까지 연결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부모가 자녀를 성취에 따라 평가하면 할수록 자녀는 부모를 '속물'로 여기든지 인격적으로 낮게 평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갈등은 세대간의 가치관 차이나 상이한 문화적 이해에 기반한다. 그러나 세대간 격차에 의해 자녀의 생각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부모에 비해 감수성이 민감한 자녀가 더 상처받기 쉬운 위치에 있다. 특히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자녀라는 생각이 들면 부모에게 저항하게 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활이 힘들다고 아이들은 호소한다. 따라서 자녀와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부모 측에서 자녀를 성취위주로 평가하는 잣대를 어느 정도는 느슨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4. 사회적 차원에서의 해결 방안

자녀들이나 가족구성원들이 공부스트레스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사회

적 차원에서의 해결방안이 필요하다. 입시위주의 정책만이 주된 교육정책으로 자리잡을 때에는 공부를 잘하는 아이도 못하는 아이도 모두 제도의 희생자로 전락한다. 또한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에게도 가난한 사람에게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교육비는 모두 스트레스로 작용한다.

이러한 사회적 차원에서 발생한 교육스트레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첫째, 우리의 교육제도도 선진국의 교육제도와 유사하게 청소년들이 학문과 직업의 두 분야 중에서 진로를 정할 수 있도록 복선적인 형태를 취할 필요가 있다(이규환, 1990; 한승희·천정웅, 1995). 직업교육 전문기관을 육성함으로써 모든 청소년들이 대학을 나와야 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거나 출세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청소년을 위한 특성화 사업과 프로그램을 실시함으로써 청소년 활동이 지역사회와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청소년들이 주위 환경과의 유대감을 강화함으로써 공동체 의식을 높이고 지역사회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Bhaermand and Kopp, 1988; Ianni, 1989). 이미 서구의 여러 나라와 일본에서는 자치단체별로 진로, 건강, 취업, 여가프로그램 등 개성있는 프로그램을 내놓고 있어서 청소년들이 독립적인 시민으로서의 소양을 키우며 능동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이영숙 외, 1993).

셋째, 학생들의 부등교 현상, 부적응 사례, ‘잠재적 중퇴자’ 문제에 대한 우려 증대와 함께 학교에 대한 청소년의 반발과 저항이 늘어나자 탈학교에 대한 논의가 일고 있으며 현재의 교육체제와는 전혀 다른 대안 학교가 모색되어야 한다는데 많은 사람들이 뜻을 같이 하고 있다(주간조선, 2000. 10. 24). 그러나 한편에서는 열린교육과 대안교육을 강화하고자 하는 노력과 열의를 보이고 있으나, 다른 편에서는 공교육의 정신에 위배된다거나 학력저하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상이한 생활을 지향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다양하게 적응할 수 있는 방향을 사회적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마련한다는 점에서 대안교육은 환영할만하다.

넷째, 사회적 차원에서 청소년 전화, 청소년 상담소, 쉼터의 수를 늘려서 청소년들이 지니고 있는 고민을 해결하는데 조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정보화에 익숙하며 익명성을 요구하는 청소년들의 특성을 이용해서 인터넷 상담을 활성화함으로써 청소년들 다수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청소년들의 적극 입장을 반영하여 학교 정체를 변화시켜 나감과 동

시에 부모-자녀관계의 개선방안과 부모의 공적차원에서의 학교 참여 확대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다방면에서의 질적 전환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변화와 함께 학교와 청소년이, 부모와 자녀가 좀 더 평화롭게 그리고 좀 더 행복하게 공존하는 기술을 배우고 또한 이러한 공존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현명한 논의가 계속된다면 보다 행복한 청소년의 학교생활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언정(1999). 성평등 성교육을 위한 관계 형성 프로그램 모색 - 청소년 이성교제 분석을 바탕으로.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여성학과 석사논문.
- 또하나의 문화(1997). 새로쓰는 청소년 이야기 2. 서울: 도서출판 또하나의 문화.
- 손승영·김용학(1995). 청소년의 유형집단 분류와 집단간 차이분석: 일상에서의 정서적 특징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제23호, pp. 29-49.
- 연문희(1996). 성숙한 부모, 유능한 교사. 양서원.
-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1996). 학업중퇴자 연구: 실태와 대책.
- 와다 히데끼(1996). 오늘의 일본 청소년은? - 심리학적 관점에서 본 문화 및 성격변화. 2020년 우리 청소년의 모습은? 사회정신건강연구소.
- 유희정(1992). 자녀교육과 부부관계. 한국가족의 부부관계. 사회문화연구소.
- 이규환(1990). 선진국의 교육제도. 배영사.
- 이동원 외(1996). 대학입시와 한국가족. 다산출판사.
- 이영숙 외(1993). 외국의 청소년 복지정책 연구 -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개발원.
- 이한(2000). 탈학교의 상상력. 삼인.
- 잉글하트, 로버트(1983). (정성호 옮김) 조용한 혁명. 종로서적.
- 조성숙(1995). 가족의 자녀교육. 한국가족문화의 오늘과 내일. 사회문화연구소.
- 조혜정(1996). 학교를 거부하는 아이, 아이를 거부하는 사회. 또하나의 문화.
- 차경수(1996). 2020년, 청소년의 병리: 학업문제. 2020년, 우리 청소년의 모습은? 사회정신건강연구소.
- 최병건(1997). (또하나의 문화 엮음) 새로쓰는 청소년 이야기 2. 도서출판 또하나의 문화.
- 최상진(1996). 2020년, 청소년의 문화: 가치관. 2020년, 우리 청소년의 모습은? 사회정신건강연구소.
- 최연실(1996). 청소년자녀기 가족의 가족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소비자아동학과 박사학위 청구논문.

- 하임 기너트(1984). (이유경 옮김) 부모와 청소년. 범우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7). 학교주변 폭력이 실태와 대책.
- 한승희·천정웅(1995). 주요 외국의 청소년활동 정책연구. 한국청소년연구. 제23호, pp. 64-84.
- 한준상(1997). 동송동의 아이들 - 청소년의 파격문화. 연세대학교 출판부.
- KBS(1999). 추적 60분: 교실이 무너지고 있다. 1999. 10. 21.
- Bhaerman, R. D., Kathleen, A. K.(1988). *The School's Choice*. The National Center for Research in Vocational Education. The Ohio State University.
- Erikson, E. H.(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Norton.
- Ianni, Francis A. J.(1989). *The Search for Structure: A Report on American Youth Today*. The Free Press.
- Kroger, J.(1989). *Identity in Adolescence: The Balance Between Self and Other*. New York: Routledge.
- Steinberg, L. D.(1981). Transformations in family relations at puberty. *Developmental Psychology*, Vol. 17 No. 6, pp. 833-840.
- Steinberg, L. D.(1987). Impact of puberty on family relations: effects of puberty status and pubertal timing. *Developmental Psychology*, Vol. 23 No. 3, pp. 451-460.

ABSTRACT

Generational Gaps Between Adolescents and Their Parents in Understanding School Life

Seong-Young Sohn*

Generational gaps between Korean adolescents and their parents are increasing in many aspects. The differences in understanding school life and goal of education are especially remarkable between the two generations.

This paper is based on the results of in-depth interviews conducted with twenty teenagers and half of their mothers. First, I examined evaluations of adolescents on school and attitudes about achievements at school as well as their everyday-life at school. Second, parents' evaluations and expectations from children's schoolworks were highlighted. How parents think of their children's performance at school and what kind of expectations they have for the presence and future of their children were foci of the research questions in the paper. Third, I aimed to figure out contents of interactions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At the same time, this study attempted to find ways that reduce conflicts and tensions caused by cultural gap of the two generations. Finally, I put efforts to present new policies which will help for the Korean adolescents to improve their quality of life both at school and home.

* Assistant Professor in College of Liberal Arts, Dongduk Women's University